



안녕, 존

안녕, 존
정림 글·그림 / 책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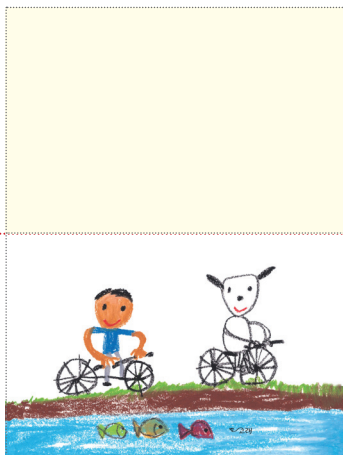


평범한 아이의 특별한 방학 나들이!

《안녕, 존》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담긴 맑은 그림책입니다. 아이가 그린 것처럼 크레용으로 쓱쓱 그린 그림과 대비되는 색연필 그림은 두 개의 시선으로 《안녕, 존》을 보게 합니다.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주인공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친구 ‘존’이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외갓집 개라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편견’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안녕, 존》의 첫 장을 펼치면, 들뜬 마음에 고사리 손으로 써 내려간 아이의 글에 피식 웃음이 납니다. 아이는 뽀뽀뽀 쓴 글씨를 자랑하고, 엄마 몰래 친구에게 줄 선물을 챙기고, 만나면 뭘 하고 놀지 계획을 세우는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떠올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엄마의 고향이 베트남인가 봐, 외갓집의 개 ‘존’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한가 봐, 짐이 자꾸 늘어나는 걸 보니 엄마도 엄마의 엄마가 무척 보고 싶고 그리운가 봐, 큰 개로 표현되어 있지만 언젠가 할머니 마을의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나 봐, 바로 그때 존이 구해주었나 봐……. 그런데 아이는 왜 친구가 아닌 개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담담하게 쓰인 《안녕, 존》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물어옵니다. ‘다름’은 무엇이냐고.

01 ‘존’이 누구인지 눈치 챘나요? 표지에 그려진 귀여운 강아지가 존이에요. 아니라고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인형이라고요? 존이 강아지 인형이든, 진짜 강아지이든, 상관없이 편지를 쓰고 있는 친구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존’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우리도 ‘존’처럼 너무나도 보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려보고 예쁜 카드를 만들어 보내 보아요.



- 1) 점심을 따라 다음을 오려 내세요.
- 2) 빨간 점선 가운데를 접으세요.
- 3) 다시 펼친 상태에서 표시된 부분을 칼 또는 가위로 오릅니다.
- 4) 접는 선을 따라 접으면 팝업 카드가 완성됩니다.
- 5) 뒤쪽에 예쁜 색지를 붙이고 보고 싶은 분께 편지를 씁니다.



02 주인공의 할머니는 고깔 모양 모자를 쓰고 야자나무 밑에 서 계셨지요. 모자와 야자수로 보아, 아마도 할머니는 베트남에 살고 계신가 보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예전부터 써왔던 고깔 모자, ‘룽’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미술영역 활동)

- 준비물 : 달력 한 장, 색종이, 털실 또는 고무줄, 송곳 또는 젓가락, 테이프



만드는 방법

- 1) 달력을 말아 고깔 모양을 만들고 이음 부위를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 2) 고깔의 아랫부분을 잘라 평평하게 만듭니다.
- 3) 양쪽 끝에 고무줄 또는 털실을 끼울 구멍을 송곳이나 젓가락을 뚫습니다.
- 4) 털실 또는 고무줄을 끼웁니다.
- 5) 고깔의 바깥쪽을 예쁘게 장식합니다.



03 우리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대한민국 지도 혹은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엄마와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표시하여 가족 분포도를 만들어 보세요. (사회영역)

- 준비물 : 세계지도 혹은 대한민국 전도, 판판한 종이, 이쑤시게, 테이프, 지도 크기 우드보드



만드는 방법

- 1) 세계지도 혹은 대한민국 전도 밑에 우드보드를 붙입니다.
- 2) 판판한 종이에 가족들의 얼굴을 그리거나 사진을 오려 붙입니다.
- 3) 가족 얼굴 그림 혹은 사진 뒤쪽에 이쑤시게를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 4) 엄마 혹은 아빠와 가족들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에 하나씩 고정해 봅니다.
- 5)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특징있는 건물이나 특산품 등을 찾아 사진 말판에 표시합니다.

